

야담에서의 가문서사

— 『계서잡록(溪西雜錄)』 연구의 한 시각

강수진*

<차례>

1. 서론
2. 이희평의 가계와 『계서잡록』
3. 『계서잡록』의 가문서사로서의 특징
4. 결론: 야담에서의 ‘가문서사’의 의미

<국문초록>

『계서잡록(溪西雜錄)』은 19세기 전반 이희평(李羲平, 1772~1839)이 편찬한 야담집으로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권은 이희평 가문의 사적 및 그가 직접 경험했던 일과 지방관으로 재임 시에 들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것으로, 이는 세간에 전해 오는 이야기를 모은 2~4권과는 그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집안의 사적을 1권에 배치한 것에 주목해 보면, 이희평은 그는 야담집 편찬에 있어서 가문서사를 기록하는 것을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 『계서잡록』은 이와 같이 기록자의 家史를 포함하여 편찬된 야담집이며, 그 家史의 분량이 전체 야담집의 1/4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이러한 특징은 현존하는 야담집 중에서 이희평의 『溪西雜錄』이 유일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이 주목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溪西雜錄』 1권을 중심으로 하여 가문서사로서의 『溪西雜錄』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야담 연구의 한 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계서잡록(溪西雜錄), 이희평(李羲平), 가문서사, 필기, 야담

*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1. 서론

『계서잡록(溪西雜錄)』은 19세기 전반에 이희평이 편찬한 야담집으로, 그는 자서(自序)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나는 나이가 60에 가까운데도 기억이 아직 흐리지 않기로 혼자 누워 평소에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던 일들과 우리 집안의 사적을 떠올리며, 그 밖에 세상에서 행해지는 선배들의 고담을 생각나는 대로 기록했다.¹⁾

위의 내용을 통해 그가 직간접으로 경험한 일, 그리고 집안의 사적, 세상에 전해지고 있는 고담, 이 3가지 유형의 이야기를 모아 『계서잡록』을 편찬했음을 알 수 있다. 『계서잡록』은 총 4권으로, 그중 1권은 집안의 사적 및 그가 경험했던 일, 지방관 재임 시에 들었던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어 서문에서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던 일들과 우리 집안의 사적을 떠올리며” 기록한 것에 해당된다. 2~4권은 세간에 전해 오는 이야기를 모은 것으로, 서문에서의 “그 밖에 세상에서 행해지는 선배들의 고담을 생각나는 대로 기록”한 것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1권과 2~4권은 저술 의도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희평은 집안의 사적을 따로 모아서 하나의 권으로 만들고 그 순서를 맨 앞으로 배치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그가 야담집 편찬에 있어 가문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을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

가사(家史)를 포함하여 야담집을 편찬한 것, 그리고 그 가사의 분량이 전체 야담집의 1/4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것은 현존하는 야담집

1) 이희평, 『溪西雜錄』(성대본) 권1, “年迫六旬, 而神精不至昏耗, 故仍臥念平日之所耳聞而目睹者, 自家間事蹟, 及外他前輩行于世之古談, 隨思隨錄, 使官童之解書者, 彙爲一書, 而題之曰『溪西雜錄』.” 본고의 『계서잡록』 번역과 표점은 익선재 야담연구반에서 번역한 『계서잡록(溪西雜錄)』(출간 예정)의 것을 따랐다.

중에서 이희평의 『계서잡록』이 유일하나 『계서잡록』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²⁾ 따라서 본고에서는 『계서잡록』 1권을 중심으로 이희평이 기록한 가문서사를 개관한 뒤에 정치적 사안과 관련이 있는 일화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희평이 계서잡록을 저술할 당시 당색과 정치적 입장은 그 가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문의 존망을 결정하고 혼인, 학맥, 교유관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이희평의 당색과 정치적 입장은 그가 2, 3권에서 조선 후기의 인물 일화를 기록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정치적 사안을 다룬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여 그가 집안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야담 연구의 한 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이희평의 가계와 『계서잡록』

이희평의 본관은 한산으로, 한산 이씨는 문과 급제자 195명, 상신 4명, 대제학 2명, 청백리 5명, 공신 12명을 배출한 명문가이다. 이희평의 집안은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3남인 이종선(李種善)의 후손들로, 이희평이 『계서잡록』 1권에 수록한 선조들 중에서 증조부 향렬의 이병태·이병상·이병진을 비롯하여 조부 향렬의 이해중·이태중·이덕중, 아버지 이태영 및 큰형 이희갑과 동생 이희조 등 이희평과 가까운 세대에서도 문과 합격자를 다수 배출하였다. 또한 이희평의 집안은 혜경궁 홍씨의 외가로, 이희평은 동생 이희준과 함께 화성행궁에서 열린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에 참석하였으며 그때의 경험을 <화성일기(華城日記)>로 남기기도 했다. 이희평이 『계서잡

2) 김준형은 「기문총화계 야담집의 문헌학적 연구」(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에서 『계서잡록』 1권을 가사(家史)로 정의하였으며, 이야기적이고 흥미 위주의 일화를 기록한 것이라고 보았다.

록』 1권을 집안의 사적으로 구성한 것은 이러한 가문에 대한 자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계서잡록』 1권은 총 75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목은과 관련된 일화 3편, 이지함 일화 1편, 이경류 일화 1편, 이 5편을 제외하고는 이희평의 증조 이하의 세대에 속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75화 중에서 생부 이태영 관련 일화가 21편, 이희평 자신과 그 형제들에 대한 일화가 27편으로, 생부와 형제들에 대한 일화가 1권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희평은 지방관으로 재임 시에 들었던 이야기들도 1권에 수록했는데, 해당 이야기는 중심인물이 이희평 집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이야기들과 이질적이다. 이희평이 자신의 집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들의 일화를 1권에 수록한 것은 자서(自序)에서 언급했던 ‘귀로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즉, 지방관으로 재임 시에 이희평이 경험했던 일에 포함되므로 이를 1권에 수록한 것이다. 1권 외에도 이희평이 집안에서 들었을 것이라 추정되는 이야기가 2, 3권에도 실려 있다. 2권에는 홍봉한과 관련된 이야기 2편, 이희평의 집안과 연관이 있는 겸인인 우육불과 홍동석의 이야기 등이 있으며, 3권에는 홍봉한과 친척 관계인 김중수 관련 일화와 그의 조부를 모셨던 노비인 대금의 일화가 수록되어 있다.

『계서잡록』 1권에 수록된 이야기들은 이희평이 지방관으로 재임 시에 들었던 것을 제외하면 가문 사람들의 성품과 행적, 경험담을 소재로 하고 있다. 집안 인물들의 성품을 소재로 한 이야기는 강직하거나 청렴한 성품 등 후대에 모범이 될 만한 특출한 성품을 지닌 인물의 일화를 기록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인물로 이희평의 본생 조부인 이산중을 들 수 있는데, 포의로 있던 시절 당시 세도가였던 홍봉한에게 관직에 나갈 것을 제의받았으나 끝내 그 제안을 거절했다는 일화를 통해 이산중의 탈속한 성품을 강조하였다. 생부 이태영에 대한 이야기 중 이태영이 관직에서 물러나 수내에서 지낼 때 어리숙한 유생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개의치 않고

그의 말 상대를 해준 일화가 있는데, 이희평은 이를 통해 아버지의 여유로운 성품을 나타냈다.

가문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한 이야기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후세에 모범이 될 만한 인물들의 치적을 기록한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 속하는 인물로는 이색, 이해중, 이태영, 이희갑을 들 수 있다. 목은은 태종 대부터 그 행적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조선 후기까지 이어져 왔다. 그 이유는 목은이 고려 말에 우왕·창왕의 옹립에 참여했으며, 왕조가 바뀐 뒤에도 살아남아 전 왕조에 절의를 지켰기 때문이다. 조선 개국 당시 이성계가 우왕이 공민왕의 혈통이 아닌 것을 역성혁명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을 고려했을 때 목은의 절의를 인정하면 조선 개국의 명분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따라서 태종은 의도적으로 목은을 실절했다고 폄하함으로써 역성혁명의 정당성을 지키고자 하였다.

이해중(李海重)은 나경언 고변 사건과 관련하여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그는 이희평의 종증조로, 당시 형조 참의로서 나경언이 올린 소장을 영조에게 보고하였다. 나경언의 고변 이후 약 20여 일 뒤 사도세자는 영조의 대처분으로 죽음을 맞게 된다. 이 때문에 이해중은 나경언의 고변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정조 등극 직후에 유배되었다. 이 논란은 이해중 사후에도 지속되었다. 이해중 외에도 이희평의 생부인 이태영(李泰永)은 역관 양국성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이윤의 옥사에 연루될 뻔했으며, 큰형인 이희갑(李羲甲)은 순조 즉위 직후 시벽(時僻) 문제에 얽혀 유배 갔다. 이희평은 계서잡록 1권을 통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과 관련이 있는 집안사람들의 행적을 해명하면서 자신의 집안사람들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려고 하였다.

집안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한 이야기의 두 번째 유형은 후세에 모범이 될 만한 인물들의 치적을 기록한 것으로, 이는 1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이 유형의 이야기는 집안의 선조 및 형제들이 지방관으로 재임 시에 일어났던 사건을 지혜롭게 해결하거나 백성들을 구휼한 일을 기록한 것이다. 이 이야기들은 대체로 선조들이 지방관으로 부임 시 어떠한 사건에 직면하여 해결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서사성을 갖추면서도 집안사람들의 치적을 기록할 수 있다는 면이 있어, 이희평이 이를 다수 수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집안 인물들의 경험을 소재로 한 이야기는 선조와 형제들이 일상에서 겪은 일을 기록한 것으로,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선조와 형제들의 과거급제와 관련된 경험담을 들 수 있다. 과거급제와 관련된 이야기는 어떠한 꿈을 꾸거나 경험을 하면 과거에 급제한다는 징크스를 소재로 하였는데, 이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1권에 다수 실려 있다. 이 외에도 앞서서 언급했던 이야기의 유형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인물로 이경류(李慶流)를 들 수 있다. 이경류는 임란 때 형을 대신하여 출전하여 왜적과 싸우다가 죽음을 맞이한 인물로, 1권에는 그가 사후에 집안사람들 앞에 나타나 집안일을 의논하기도 하고 효를 행하였다는 일화가 수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이희평이 『계서잡록』 1권에서 다양한 유형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야담의 특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즉, 그는 집안 인물들의 행적, 성품, 경험 등을 소재로 한 다양한 유형의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야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동시에 선조들의 치적을 기리고자 했으며, 선조에 대한 의혹을 해명함으로써 집안의 위상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계서잡록』 1권 중에서 정치적 사안과 관련이 있는 일화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곧 이희평 집안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러한 집안의 정체성은 1권뿐만 아니라 2, 3권의 인물 일화를 기록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3장에서는 정치적 사안을 다룬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여 그가 집안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정체성이 『계서잡록』 서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3. 『계서잡록』의 가문서사로서의 특징

1) 선조에 대한 의혹 해명

『계서잡록』 1권에서 처음 다룬 인물은 목은 이색이다. 목은은 태종 즉위 전까지는 고려에 절의를 지킨 인물로 평가를 받았다. 태종 대부터 목은이 실절했다는 의론이 나오기 시작한 이유는, 명나라의 국자조교인 진련(陳璉)이 쓴 목은의 비명(碑銘)에 조선 개국 전후의 일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했던 태종이 정치적으로 목은의 절의를 부정했기 때문이다. 태종은 조선 개국의 명분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여 목은의 절의를 부정하였는데, 목은이 태조의 위화도 회군을 찬성한 것, 그리고 태조가 목은에게 관작을 내린 것을 근거로 들어 목은을 고려 왕조에 절의를 지키지 못한 인물로 평가했다. 이러한 목은에 대한 평가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선조 이후로, 이때는 조선 개국 후 약 200여 년이 흐른 뒤였으므로 우왕과 창왕이 신돈의 자손이라는 것은 조선의 개국을 정당화하기 위해 개작된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목은의 절의를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바뀌었다.³⁾ 그럼에도 목은이 실절했다는 평가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희평은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선인(先人)들의 글을 인용하여 1~2화를 구성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누군가 최곤륜(崔昆侖)에게 물었다.⁴⁾

“고려 왕조가 바뀌에 당해서 목은은 바로 목숨을 바치지 않아 포은 선생처럼

-
- 3) 목은에 대한 평가의 변화 과정은 어강석의 『목은 이색의 절의 실천과 후대의 평가』(『포은학연구』 16, 포은학회, 2015)와 정만조의 『牧隱 李穡의 역사적 위상과 영남의 餘脈』(『민족문화논총』 50,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2.)을 참조하여 정리함.
- 4) 여기서 고려 왕조가 이씨 왕조로 바뀌는 과정에 대해 그에게 물었던 것은 임상덕(林象德)이다. 임상덕은 자가 이호(彝好), 호가 노촌(老村)으로 『동사회강(東史會綱)』이라는 제목의 역사서를 편찬한 인물이다. 여기에 나오는 문답의 기록은 최창대의 『곤륜집(昆侖集)』에 『고려사의 우왕·창왕 사적에 대해 논하여 임이호에게 답함[書麗史禍昌事 答林彝好]』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명쾌하게 절의를 지킨 것 같진 못하나, 그의 처음과 끝을 살펴보면 왕씨에 대한 마음으로 끝까지 절의를 온전히 지킨 인물이라 할 것이요. 그런데 목은이 장단으로 귀양 갈 적에 도당(都堂)에 보낸 십절시(十絶詩)에 ‘신조(辛朝)에서 방(勝)에 올라 비로소 벼슬길에 나갔네⁵⁾’라는 구절이 있지요. 목은이 만약 우왕이 공민왕의 아들임을 분명히 알았다면 어떻게 ‘신조’라는 말을 음영하는 사이에 쓸 수 있었을지 모르겠소.”

“그 당시 국운이 거의 끊어질 즈음에 와언(詭言)이 마구 일어나는 판국인데, 궁중의 비밀스런 일을 바깥의 신하로서 어떻게 자세히 알겠습니까? 우왕이 기왕에 신돈의 아들이란 명목으로 폐위되고 나서 목은 역시 후계자를 세우는 데 참여했습니다. 시구에서 위와 같이 쓴 것은 실로 심히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응당 전 왕의 아들을 세워야 한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면, 필시 왕씨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은 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목은이 신돈의 아들임을 분명히 알았다면, 폐위당한 우왕에게 충절을 바칠 수 없게 되었더라도 또한 어찌 왕씨 중에서 다른 후계자를 택하지는 의론을 제출하지 않았겠소? 여기서 그의 숨을 뜻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또 말하기를, “우왕, 창왕이 왕씨 성이 아니라는 점은 중국에서도 듣고 알아서 힐문한 일이 있었으니, 그 당시 고려 왕실의 은밀한 일이 파다하게 알려졌던 것은 여기서 또한 볼 수 있겠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곤륜은 이렇게 답변했다.

“그 말로 증언을 삼기에는 부족합니다. 당시에 천명이 이미 고려를 떠났고 인심도 돌아간 곳이 있어서 대소 신료들 가운데 왕씨 쪽 인사는 오히려 적었습니다. 이른바 중국에서 힐문을 했다 한 것은 중국에 갔던 사신 자신이 만들어 내고 자신이 풀어낸 거짓말이 아닌 줄 어찌 알겠습니까? 윤곡(耘谷)은 당시 자신이 들었던 바와 달랐기에, 다른 말의 진실과 허위는 의당 알지 못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사실을 기록한 말이 단언을 내리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퇴계(退溪) 선생은 서간에서 ‘(나는) 우리나라 만세 후에는 의당 윤곡의 의론을 따를 것이다.’⁶⁾라고 하였고, 상촌(象村)은 이르기를 ‘우왕과 창왕의 일

5) 『도당의 여러 분들에게 부치대[壽省郎諸兄]』, 『牧隱詩藁』 권35)에 나오는 구절이다.

은 응당 원천석의 기록을 신빙할 역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象村稿 卷46 彙言 5』)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자세한 견문이 어찌 들은 바 없이 나왔겠습니까.”

최근륜이 이미 이와 같이 밝혔으니 여기서 백대의 공론을 가히 볼 수 있다.

⑥ 우암(尤庵)은 목은의 신도비에 이렇게 기록했다.

“『고려사』에, ‘이 모가 누군가에게 말하기를, 『호치당(胡致堂)이 원제(元帝)는 실은 성이 우(牛)씨인데 동진(東晉)의 여러 신하들이 그대로 두고 바꾸지 않았던 것은 필야 북방 호족(胡族)들의 침략을 당하는 위기 상황에서 왕조의 구속에 의존하지 않으면 어떻게 인심을 붙잡을 수 있겠는가 하고 여겼던 것이니, 내가 신씨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은 이 뜻이었다.’ 하였다’라고 나와 있다. 이 기록은 곡필(曲筆)인듯하니, 당시 여러 공신들이 선생에 기대어서 창왕을 폐위시킨 일에 정당성을 부여했던 것이다.”

위 기록들은 모두 다 신필(信筆)이라 할 수 있다.⁷⁾

- 6) 여기서 ‘만세(萬世) 후’라는 것은, 조선왕조가 끝나는 단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퇴계는 우왕과 창왕이 사실상 신씨가 아니라고 믿고 있지만, 이는 당시 금기로 삼았던 일이기 때문에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성호는 ‘안백순의 문목에 답하다[答安百順問目]’에서 퇴계의 편지에 이러한 말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7) 『溪西雜錄』 권1, “或問昆命曰: ‘麗朝革命之時, 牧隱不卽致命, 雖未若圃老之明快, 而考其始終, 則乃心王氏, 畢竟全節之人. 而其謫長湍也, 呈都堂十絕, 有云『放榜辛朝始出身』. 牧隱若明知恭愍之子, 則豈忍以辛朝之說, 形謫吟詠乎?’ 曰: ‘其時國祚垂絕, 訛言繁興, 禁密牀第之事, 有非外臣所得詳. 而禍旣名爲吨子而見廢, 牧老亦旣與聞於策立, 則詩句之云然, 固無足深怪. 然以當立前王子之說觀之, 其不敢必其非王氏可見. 設若牧老明知爲辛吨子, 則雖不能立僅於廢禍, 亦豈無擇立王氏他宗室之議耶? 此亦可見其微意也.’ 或曰: ‘禍昌之爲異姓, 中朝之所聞知而致詰者, 則其時國言之騰播, 此亦可見矣.’ 曰: ‘此尤不足爲公證. 當是時, 天命已去, 人心有歸, 大小朝紳, 王氏之人絕少, 則所謂中朝詰問, 安知非使臣自倡自和之嚮言耶? 耘谷異乎所傳聞異辭者, 情僞虛實, 宜無不知, 而記實之言, 顧不足爲斷案耶? 退溪先生書, 有云: 『國家萬世後, 當從耘谷議』. 象村云, 『禍昌之事, 當以元天錫爲信史』. 區區之見, 蓋亦有所受也.’ 昆崙旣如是, 可見百世公議也. 尤翁撰神道碑云, ‘史曰: 李某語人曰: 『胡致堂以爲元帝姓牛, 而東晉群臣安而不革者, 必以胡羯交侵. 若不憑依舊業, 安能係屬人心? 吾於辛氏, 不敢有異議者, 亦此意也』, 此筆似涉曲筆, 當時佐命諸公, 欲藉先生, 以成廢昌之爲正也云.’ 皆可爲信筆也.”

㉔ 정한강(鄭寒崗)이 퇴계(退溪)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조남명(曹南冥)이 일찍이 정포은(鄭圃隱)의 출처(出處)에 대해서 의심을 하였는데, 저 역시 포은의 이 일은 자못 가소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은은 공민왕 때 13년간 대신의 자리에 있었는데, ‘불가하면 그만 둔다’는 도리에 비추어 부끄럽다 하겠습니까. 또한 신우(辛禱) 부자를 받들었는데, 우왕이 왕씨의 혈통이라 여겼다고 하면 후일 쫓아내는 데에 참여한 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10년 동안 받들다가 하루아침에 쫓아내 죽이다니 이는 차마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만약 왕씨의 혈통이 아니라고 여겼다면 여정(呂政)이 제위에 오르매 영(嬴)씨는 이미 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받들며 녹을 받아먹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다가 뒷날 고려를 위해 죽은 것은 깊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퇴계는 이렇게 대답했다.

“정자(程子)께서 이르기를, ‘사람에 대해 응당 허물이 있는 중에서 허물이 없는 것을 찾아낼 일이고, 허물이 없는 가운데서 허물이 있는 것을 찾아낼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포은의 큰 절의는 천지의 경위(經緯)요, 우주의 받침목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세상에 의론을 일으키길 좋아하고 남을 공격하길 즐겨하는 자들은 ‘사람의 아름다움을 이루어 주는 일 [成人之美]’을 좋아하지 않고 시끄럽게 떠들어 그만두지 않고 있다. 나는 매양 귀를 막고 듣고 싶지 않다.”

포은이 우왕을 세운 것은 이와 같이 광명정대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남명과 한강 두 분 다 유현(儒賢)이지만 오히려 의심이 없지 않았다. 그러다가 퇴계에 이르러 의혹이 마침내 변화된 것이다. 목은 선조의 조용히 의에 나아간 일도 후인으로서 함부로 추측하여 의론할 일이 아니다.⁸⁾

8) 『溪西雜錄』 권1, “鄭寒崗問於退溪曰: ‘曹南冥嘗以鄭圃隱出處爲疑, 鄙意圃隱一事頗可笑. 爲恭愍朝大臣十三年, 於不可則止之道, 已爲可愧. 又事辛禱父子, 謂以禱爲王出歟, 則他日放出, 已亦預焉何也? 十年服事, 一朝放殺, 是可忍乎! 如非王出, 則呂政之立, 嬴氏已亡. 而乃尙無恙, 又從而食其祿. 如是有後日之死, 深所未曉.’ 退溪答曰: ‘程子曰: 『人當於有過中求無過, 不當於無過中求有過.』 圃隱大節, 可謂經緯天地, 棟梁宇宙. 而世之好議論·喜攻伐者, 不樂成人之美, 嘵嘵不已, 每欲掩耳而不聞也.’ 圃隱之立禱, 如是光明正大, 而南冥·寒崗, 俱是儒賢, 尙不無致訝, 至有退溪之辨破, 則牧隱先祖, 雍容就義, 有非後生所可測見而妄議者也.”

목은이 실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는, 그가 우왕과 창왕의 왕위 계승 과정에 관여했으면서도 시에서 우왕을 ‘신조(辛朝)’로 지칭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적으로만 보면 목은이 우왕을 신돈의 아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 개국 시에 이성계가 역성혁명의 명분으로 공민왕의 아들이 아닌 신돈의 아들인 우왕이 왕위를 계승하여 고려의 정통성이 이미 무너졌다는 것을 내세운 것을 고려하면, 목은은 태조가 조선을 개국한 명분에 동의하면서도 고려에 대해 절의를 지키는 인물로 해석된다. 또한 목은이 우왕이 공민왕의 아들임을 인정했다고 보는 경우, 목은이 우왕을 폐위시키고 창왕을 후계로 세운 일에 참여했던 행적을 불충(不忠)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목은의 행적에 대한 논란이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희평은 신뢰할 만한 선인들의 기록을 근거로 목은에 대한 의혹을 반박하였다. 그가 1, 2회에서 목은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반박을 제시한 것을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최창대의 「고려사의 우왕·창왕 사적에 대해 논하여 임이호(임상덕)에게 답함(書麗史禍昌事 答林彝好)」을 인용하여, 목은이 우왕을 신돈의 아들이 아닌 공민왕의 아들로 인정하였음을 주장했다. 위 글에서 혹자(或者), 즉 임상덕이 목은이 시에 ‘辛朝’라는 말을 사용한 점을 들어 목은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최창대는 목은이 우왕 폐위 시에 우왕의 아들인 창왕을 후계로 세울 것을 주장했다는 것을 근거로 반박하였다. 우왕이 신돈의 아들이라면 창왕 또한 신돈의 후손이기 때문에 목은이 신돈의 후손을 후계로 내세울 리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최창대는 운곡과 퇴계의 말을 인용하여 우왕은 공민왕의 아들이고 목은도 이를 알았기 때문에 고려에 대해 절의를 지키는 것임을 우회적으로 주장했다.

이희평은 최창대의 글에 이어 우암(尤庵)의 〈목은비음기(牧隱碑陰記)〉를 인용하여 목은에 대한 의혹을 한 번 더 해명하였다. 우암이 인용한 구절

은 『고려사절요』 권34에 수록된 공양왕 2년의 기사로, 이에 따르면 목은이 혼란기 속에서 고려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돈의 아들임을 알면서도 우왕을 옹립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이 기록 또한 ㉔에서 우왕을 신우(辛禱)로 지칭한 것과 마찬가지로 목은이 우왕이 신돈의 아들임을 알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우암은 이 기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당시 조선 개국에 참여했던 공신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목은을 이용하여 이러한 말을 지어냈다고 주장하였다. 이희평은 〈목은비음기〉에서 우암이 고려사의 기록이 허위라는 것을 지적한 부분을 인용하여 목은의 실절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냈다.

㉔는 정구(鄭述)와 퇴계의 문답(『退溪文集 答鄭道可問目』)으로, 이희평은 이를 인용하여 목은의 절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임을 나타냈다. ㉔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구는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의 행적에 대해 우왕이 왕씨의 혈통인 줄 알았다면 우왕 부자를 폐위시킨 것이 불충(不忠)이 되며, 또한 왕씨의 혈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도 이를 묵과하였기 때문에 불충이 된다고 하였다. 즉, 정구는 포은이 우왕을 왕씨의 혈통으로 여겼든 여기지 않았든 그의 행적은 불충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퇴계는 포은이 절의를 지킨 것은 의혹을 제기할 일이 아닌데도 굳이 의혹을 제기하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 비판하였다. 이희평이 정구와 퇴계의 문답을 인용하여 2화를 구성한 것은 정구가 포은에게 제기한 의혹, 즉 우왕과 창왕을 신돈의 후손인 줄 알면서도 옹립했다는 의혹이 목은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희평은 퇴계의 기록을 목은에 적용하여 의혹을 제기할 만한 일이 없는데도 굳이 시문의 구절이나 그 행적의 모순점을 찾아서 목은의 절의를 부정하는 행위를 비판하였다.

이와 같이 이희평은 독자들이 신뢰할 만한 선인들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목은에 대한 의혹을 3가지 방향에서 반박하였다. 그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것은 우암, 퇴계와 같은 후대의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선인들이 목은의 충절을 인정했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목은에 대한 의혹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희평의 집안에 대한 두 번째 의혹은 이희평의 양부 이도영의 부친인 이해중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중은 생전과 사후에 나경언과 모의하여 사도세자를 모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해중이 이러한 의혹을 받은 이유는, 그가 형조 참의로 있었을 당시 나경언이 영조를 직접 대면하기 위해 환관들이 역모를 일으키려 한다고 형조에 고했기 때문이다. 나경원의 소장을 받은 이해중은 그 내용을 영조에게 알렸고, 이 일을 계기로 나경언의 고변 사건이 일어났다. 또한 나경언의 고변 이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사도세자는 영조의 대처분으로 뒤주에 갇혀 죽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이해중이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정조 즉위 직후인 1776년 4월에 이일화(李一和) 등의 상소로 공론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일화 등은 사주를 받고 상소를 올렸다는 이유로 복주되었으나, 같은 해 6월에 이해중은 역적들을 늦게 토벌했다는 죄목으로 단전에 유배되었다. 당시 정조가 이해중에 대해 “나경언의 옥사 때에 청대(請對)하는 마음 같았다면 반드시 감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정조실록』 즉위년(1776) 6월 25일 기사)라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해중이 유배된 것은 결국 나경언의 고변 사건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해중에 대한 의혹은 사후에도 제기되었으며, 이는 그의 조카인 이태영의 관직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이해중에 대한 혐의는 집안의 흥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희평은 15화에서 이해중은 나경언의 옥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상세하게 해명하였다.

나의 조부인 참판부군(參判府君) 이해중은 임오년(1762) 5월에 통정대부에 올라 형조 참의로 임명되었다. 이때 판서 이지억(李之億)이 체직을 청했고 판

서 이규채(李奎采)는 휴가를 청했다. 그래서 부군(府君)이 홀로 형조 당상관으로 아문에 들어가는데 문득 소지(所志) 한 장이 들어왔다.

“환관액예(宦官掖隸)들이 서로 의논하여 종사의 위급함이 호흡 간에 달려있으니 당상께옵서 대조(大朝)께 주달을 하셔야 합니다.”

부군이 소지를 보고 놀랍고 의아하여 정서(正書)한 자를 붙잡아 들여서 물어 보았더니, 그는 액예로 성명은 나경언(羅景彦)이라고 하였다. (중략) 부군은 그 자에게 칼을 썬 뒤 구금하도록 하고 그 문서를 소매에 넣고 당시 세 정승의 집에 찾아가서 의논을 한바, “청대(請對)하는 것이 옳겠소” 하였다. 함께 청대를 하기를 청하고 임금께 나아갔다. 친국을 개설하라는 명이 내려, 죄인을 이송하여 금부도사가 법에 따라 붙잡아 친국장으로 데리고 왔다. (중략) 임금이 그의 결박을 풀어주라고 명하여 죄인이 상의를 벗어 뒤쪽을 벌리자 옷 솔기 속에 종이 한 장이 나와서 올랐다. 거기에 적힌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으나 대개 소조(小朝)와 관련된 것이었다. 임금께서 친람한 연후에 명하여 보는 앞에서 소각하도록 했다. 그리고 죄인은 즉시 사형에 처했다. 그 소지의 내용은 친국에 참여했던 추관(推官)도 보지 못했다. (중략) 부군은 (세자의) 말씀을 듣고 물러나와 금부에 예교(養教)를 전하고 의금부 서리 서필번(徐必蕃)과 나장 김거복(金去福)을 붙잡아 구금했다. 이내 예교에 따라 포도청으로 이송을 하였으니 이는 오월 초의 일이다. 대조의 큰 처분은 윤5월 20일에 있었다. 그 이후로 임금은 세손의 효심이 상할까 두려워 그때 승정원일기 및 의금부의 문서를 모두 탕춘대에서 세초(洗草)하였다. 그 후로 점차 세월이 지나서 다들 임오년 윤5월에 있었던 일을 알지 못했다. 다른 편에서 말을 만들어 이를 빌미로 우리 집을 엮어 넣으려 한다.

병신년(1776)에 이일화(李日和)의 흉소(凶疏)가 있었고, 임자년에 이르러는 또 남학 유생 박하원(朴夏源)의 상소가 있었는데 “흉적과 더불어 한통속이다”라고 말하는 데 이르렀다. 사람이 무고해서 엮어 넣는 것이 어찌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대개 저 무리들은 오월 아무 날 흉적의 옥사가 일어났으며 아무 날 대처분이 있었는데 그 기간이 오륙일에 불과하다고 한다. 대처분은 윤달에 있었고 흉적의 일은 오월 초에 있었던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대처분이 윤달에 있었으니 거의 한 달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필시 알지 못할 이치가 없는데, 이

렇게 하지 않으면 죄로 얹어 넣을 수 없는 까닭이다. (하략)⁹⁾

이희평은 15화의 서두에서 당시 이해중이 나경언의 고변이 있던 날에 부득이하게 혼자 당상관으로서 형조에 있었다는 점을 서술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서두에 넣은 것은 이해중은 나경언의 고변 사건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이희평은 나경언의 고변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서, 이해중이 나경언 고변 사건 당시에 형조에 있었던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며, 나경언의 흉서를 직접 보지 못한 점, 그리고 그가 친국장에서 나오다가 사도세자를 만나 사도세자가 지시한 대로 일처리를 한 점을 근거로 들어, 이해중이 나경언과 결탁하여 사도세자를 모함했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또한 그는 나경언의 고변 사건은 5월 초에 있었던 일이고, 영조의 대처분은 윤5월 20일에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두 사건 사이의 연관성을 부정하였다. 당시 이해중을 공격하는 상소에서 두 사건을 같은 달에 일어난 것으로 서술한 것에서 논리의 허점을 찾아 이해중에 대

9) 『溪西雜錄』 권1, “祖考參判府君, 壬午五月, 陞通政而除刑議. 祖考參判府君, 壬午五月, 陞通政而除刑議. 時判書李之億呈遞, 判書李奎采呈告, 府君以獨堂上赴衙. 忽有一張所志曰: ‘宦官掖隸, 相與謀議, 宗祀之危迫在呼吸, 堂上教是急急奏達于大朝’云云. 府君覽而驚訝, 捉入呈訴人, 問之則以爲渠是掖隸, 而姓名羅景彥也云. (중략) 府君仍使枷囚, 袖其狀, 而往議于時三相之家. 則皆曰: ‘請對可矣.’ 仍與之請對而入侍. 有設鞫之命, 罪人發遣, 禁都依法捉入于鞫庭. (중략) 上命解縛, 則罪人解上衣, 而坼其背, 自衣縫中出一紙而上之. 其書辭不知如何, 而蓋語逼小朝者也. 上親覽後, 命使焚之於帳前, 罪人即使正刑. 其書則參鞫推官, 亦不得見之. (중략) 府君承下教退出, 傳睿教于禁府, 而禁吏徐必蕃·羅將金去福捉囚矣. 仍睿教移送捕廳, 此是初五月事也. 而大朝大處分在於閏五月念後. 而伊後上以恐傷世孫之孝心, 伊時政院日記及禁府文書, 并洗草於蕩春臺, 其後浸浸日久, 皆不知壬午之有閏五月也. 一邊之言, 欲緣此而構陷吾家. 丙申有日和之凶跡, 至于壬子, 又有南學儒朴夏源之疏, 而至曰: ‘與凶賊符同.’ 云云. 人之構誣, 胡至此極? 蓋彼輩以爲五月某日凶賊獄事出, 而某日有處分, 其間不過五六日云. 而不知有閏月, 而凶賊事出於初五月, 處分在於閏月, 幾過一朔之後也. 必無不知之理, 而不如是, 無以構成罪業故也.”

한 의혹이 허황된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나경언의 고변이 일어난 것은 5월 22일이고, 영조의 대처분은 윤 5월 13일이다. 즉, 두 사건은 약 20일 사이에 벌어진 일이나, 이희평은 이들 사건이 한 달 이상의 간격을 두고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해중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부정하였다.

위의 인용문에 제시된 내용 외에도 이희평은 정조가 이태영을 불러 이해중과 관련된 의혹이 모두 해소되었음을 하교한 일을 제시하여 이해중 관련 의혹은 정조마저 인정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이희평이 시조인 목은의 행적과 당시 민감한 사안에 엮인 이해중에 대한 의혹을 해명한 것은 이러한 사안들이 집안의 위상과 존망에 연관이 되기 때문이다.

2) 가문의 정치적 입장 표명: 노론 강경파, 시파(時派)

이희평은 『계서잡록』 1권에서 이태중과 관련된 일화 2편을 통해 자신의 집안의 당색, 즉 노론 강경파로서의 입장을 드러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의 족대부 삼산공(三山公) 판서 이태중(李台重) 씨는 국사를 논하다가 임금의 뜻을 어겨서 갑산 부사(甲山府使)로 쫓겨 가게 되었다. 당시 영성군(靈城君) 박문수(朴文秀)가 함경도의 관찰사로 있었다. 그는 공이 온다는 말을 듣고 낙민루(樂民樓)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삼산공은 연명(延命)한 다음 올라가서 박문수를 뵈었다.

“영감은 노론 중의 준론(峻論)이요, 나 또한 소론 중의 준론으로 이름을 얻은 사람이요. 오늘 이렇게 서로 만나서 마침 조용하니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도 좋겠소.”

박문수가 이렇게 말하여 공 또한 “좋소”라고 대답했다.

“나는 노론이나 소론이나 다 같이 반역을 했다고 말합니다.”

“천하의 의리는 양쪽 다 옳은 것도, 양쪽 다 틀린 것도 없거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소”

“소론은 무신(戊申)·을해(乙亥)년에 거병을 한 바가 있으니, 이는 지금 임금님께 반역한 것이며 노론은 끝내 경종에 대해 반역한 터여서 그렇게 말한 것이요” 이에 삼산공은 웃으며 말했다.

“노론은 군사를 일으킨 행동이 없거늘 어떻게 소론과 같이 말할 수 있겠소? 사또께서 기왕에 마음에 품은 생각을 숨기지 말라 하셨기로, 종내 바른 말을 해도 벌주지 않으시겠지요”

“그렇지요”

“하관(下官)은 소론 가운데서 특히 사또를 역적이라고 말합니다.”

박문수는 크게 놀라 얼굴색이 변해, “무슨 말이요?”라고 했다.

“사또께서 삼남 지방 안렴(按廉)을 3년이나 하셨지요. 그때 역적 이인좌(李麟佐)가 은밀히 힘을 기르고 있었거늘, 그런 정황을 과연 몰랐단 말이요? 만약에 몰랐다면 직무를 유기한 것이요, 만약에 알았다면 불고지죄(不告之罪)에 해당하는 것이요, 이 때문에 사또가 역적인 줄로 압니다.”(10화)¹⁰⁾

위는 이희평의 족중조부인 이태중에 대한 일화이다. 이태중은 노론 중 준론으로, 1735년에 노론사대신의 신원을 주장하다가 흑산도에 위리안치된 바 있으며, 1740년에 이광좌를 탄핵하다가 갑산에 유배되었다. 이희평

10) 『溪西雜錄』 권1, “族大父三山判書公諱台重氏, 以言事忤上占, 黜補甲山府使. 時靈城君朴文秀, 按北關矣. 聞公至, 坐於樂民樓上而待之. 公延命後, 入見巡使, 則文秀曰: ‘令監老論中峻論也, 吾亦於少論中以峻有名者也. 今日相逢, 適又從容, 請與議論, 可乎?’ 公曰: ‘諾.’ 文秀曰: ‘吾則曰: 老少論俱是逆云矣.’ 公曰: ‘天下義理, 無兩是雙非, 下教何爲也?’ 文秀曰: ‘少論於戊申乙亥, 有舉兵之舉, 此則今朝之逆也, 老論終是景廟之逆也. 故云爾.’ 公笑曰: ‘老論無稱兵之舉, 何可與少論同日而語哉? 使道既使之有懷無隱, 則終日危言而無誅, 可乎?’ 朴曰: ‘諾.’ 公曰: ‘少論之中, 下官, 以使道爲逆賊云矣.’ 文秀大驚變色曰: ‘何謂也?’ 公曰: ‘使道按廉三南, 爲三年之久矣, 獐賊之醞釀, 其果不知乎? 若曰不知, 則溺職矣; 若曰知之, 則豈不伏知情之罪乎? 以是, 知以爲逆矣.’”

은 이태중이 당상관으로서 영조의 탕평책에 반대하여 유배된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의 일화를 통해 집안의 당색을 드러냈다. 위의 일화는 이태중이 임금의 뜻에 어긋나 갑산 부사로 좌천되었을 때 함경 감사였던 박문수를 만났던 일을 기록한 것이다. 그 내용은 박문수가 소론의 입장에서 노론이나 소론이나 임금에게 반역한 것은 똑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 이태중이 노론은 거병을 한 일이 없으므로 소론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말로 이를 반박한 것이다. 이 일화에서 이태중은 자신보다 박문수의 관직이 높다는 것에 개의치 않고 노론으로서의 정치적 입장을 당당하게 드러낸 인물로 나타나 있다.

이희평은 10화에 이어 11화에서도 이태중의 당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그 내용은 이태중이 이천보의 집에 방문했다가 이천보가 밤새 정제두의 문인인 구택규의 집에 있다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와 절교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희평은 11화의 말미에서 이태중이 이천보에게 “양반이 어떻게 구택규의 집에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兩班何可夜話於具宅奎之家乎?]”라고 한 말을 인용하여 소론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그런데 10화를 살펴보면 실제와 어긋난 사실이 일부 보인다. 당시 이태중은 이광좌를 탄핵한 일로 갑산 부사로 좌천된 것이 아니라 갑산으로 유배당했다. 이태중이 갑산으로 유배되었을 1740년 당시에 박문수가 함경 감사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접점은 있으나 실제로 위의 일화에서처럼 낙민루에서 만나 둘이 언쟁을 벌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이희평은 이태중이 갑산 부사로 좌천되었다고 기록함으로써, 이태중과 박문수의 만남에 개연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위의 이야기에서 박문수가 소론이 을해년에 거병했다고 한 것은 나주벽서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 나주벽서사건은 1755년에 일어난 일로 위의 이야기의 시점과 맞지 않다. 따라서 위의 일화는 이태중이 갑산으로 유배되었을 당시 박문수가 함경 감사였다

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창작된 이야기로 볼 수 있다. 탕평책에 반대했던 일로 유배를 간 이태중이 당대 소론을 대표하는 인물인 박문수와 만나 벌인 언쟁에서 노론 강경파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당당하게 주장했다는 일화를 통해 집안의 당색을 강조한 것이다.

이희평의 이러한 당파적 입장은 『계서잡록』 2권에도 드러나 있다. 이희평은 36회에서 노소론(老少論)의 분당 과정을 설명하면서 윤증을 ‘이윤(伊尹)’이라고 지칭하였다. 또한 이희평은 윤증을 스승인 우암이 묘갈명에서 그 아버지 윤선거가 병자호란 때 강화도로 피란을 가 있을 당시 자결하지 않았던 것을 조롱한다고 곡해하여 스승을 저버린 인물로 나타내었다. 즉, 이희평의 논리에 따르면 노소론의 분당은 윤증의 좁은 소견으로 벌어진 일이며, 윤증을 추종하는 소론의 인사들 또한 이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2권의 57화에서는 노론4대신 중 조태채를 중심인물로 설정하여 신임옥사의 전말을 설명하였는데, 이 또한 노론의 입장에서 노론사대신을 옹호하고 조태구 등의 소론계 인물들을 비판하였다.

이희평의 당색은 인물을 지칭하는 말에서도 드러나는데, 앞서서 언급했던 57회에서 노론4대신은 존칭어인 ‘공(公)’을 붙이는 반면, 조태구·최석항·유봉휘와 같은 소론 인사들에게는 존칭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들 무리를 ‘구휘배(耇輝輩)’로 지칭하였다. 소론 인사들에 대한 지칭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더라도 존칭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자주 보이는데, 3권의 박문수 관련 일화에서도 존칭어를 붙이지 않고 ‘朴文秀’라고만 지칭하였다. 이와 같이 이희평이 1권에서 집안의 당색을 표명하고, 또한 집안의 당파적 입장에 치우쳐서 인물 및 정치적 사건을 2권에 기록한 것은 당색을 곧 집안의 정체성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이희평은 이 외에도 시파(時派)의 입장에서 시벽(時僻) 대립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 기록하였다. 이희평 집안은 혜경궁 홍씨의 외가로, 그는 1권의 52회에서 혜경궁 홍씨와 가까운 친척으로서 참석한 혜경궁의 회갑연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또한 이 일화에서 혜경궁이 자신의 형제를 따로 만나보려고 했다는 것을 서술함으로써 혜경궁이 자신의 집안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혜경궁과 자신의 집안의 친분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부분이 2권에도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익정공 홍봉한(洪鳳漢)은 나의 고조부(李漢)의 셋째 사위이다. 혜경궁이 평동(平洞) 옛집에서 태어나 우리 집에서 성장하여 대궐에 들어가는 데 이르렀기에 만년에 매양 옛집이 그대로 내려오는가를 물으시곤 하였다.¹¹⁾

위는 『계서잡록』 2권 73화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이희평은 홍봉한과 관련된 일화를 기록하면서 혜경궁이 자신의 집에서 성장하였으며 이 일을 잊지 않고 있음을 서술함으로써, 혜경궁과 자신의 집안의 친분이 오랜 기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한중록』에도 나오는데, 혜경궁은 『한중록』에서 외가인 한산 이씨 집에서 성장하였으며 외사촌들과 가까이 지냈다고 서술하였다. 즉, 혜경궁은 입궁 전후에 이희평의 집안과 가까이 지냈으며, 따라서 이희평의 집안은 혜경궁의 집안 및 사도세자와 관련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무관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이희평의 큰형인 이희갑은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된 직후에 시파라는 이유로 유배당했으며 아버지 이태영은 관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러나 이희평은 1권의 57화에서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면서 이희갑이 당시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었던 시벽 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나타냈다.

임자~계축연간(1792~93)에 시벽(時僻)의 의론이 나왔는데, 심노현은 심환

11) 『溪西雜錄』 권2(익선재본), “翼靖公鳳漢, 卽高王考第三婿也. 惠嬪, 誕降于平洞故第, 長於吾家, 以至於入宮, 晚年每下問舊第之尙傳與否.”

지(沈煥之) 및 역적 권유(權裕)의 문하에 쫓아다녔으며, 자기 조카인 심반도 그쪽에 발을 붙이게 했다. 당시에는 심반도 이미 과거에 합격한 상태였다. 어느 날 새벽에 심반이 갑자기 찾아와서 백씨를 보고서 “그대는 지금의 상황을 알고 있는가?” 하여, 백씨는 “모르겠네.”라고 대답했다.

“시론(時論) 편에 서유린(徐有隣) 같은 자들은 모두 역적 쪽으로 돌아갔지. 벽론(僻論)이 득세를 하여 우리 종인(宗人)이 바야흐로 날리게 될 것인데, 그대는 지금 나와 함께 가는 것이 좋겠네.”

“나는 시파다 벽파다 하는 것이 어떤지 모르네. 가고 싶으면 자네나 갈 것이지, 어찌 나까지 끌고 가려 하는가? 나는 스스로 나이니, 따로 주장하는 곳이 없고 역시 가고 싶은 곳도 없다네.”

심반이 백씨를 갖가지로 헐뜯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했지만, 백씨는 끝내 정색을 하고 말했다.

“그만 두게. 그대는 가고 싶으면 가게. 내 어찌 그대를 따라할 것인가.”¹²⁾

위의 57화는 이희평의 큰형인 이희갑의 일화로, 그 내용은 이희갑이 벽파에 속했던 심반과 절친한 사이여서 벽파가 득세했던 당시에 벽파에 합류하기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위의 일화에서 이희갑이 “나는 시파다 벽파다 하는 것이 어떤지 모르네.”라고 말한 것을 통해, 이희평은 그가 당시 시벽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이희평이 이 일화를 기록한 것은 이희갑이 정순왕후 수렴청정 당시에 유배당한 것은 그의 정치적 입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이희평은 이 일화를 통해 그의 집안은 혜경궁과 가까운 친척 관계

12) 『溪西雜錄』 권1, “忽於壬子癸丑間, 時僻之論出, 而魯賢奔走於沈煥之及賊裕之門, 而又使其侄托迹. 時其侄已釋褐矣. 一日曉, 忽來見伯氏以爲: ‘君知時像乎?’ 對曰: ‘不知矣.’ 沈鑿曰: ‘時牌如徐有隣者, 皆歸於逆邊矣. 而僻牌得時, 如吾宗人今方騰颺, 君可與我偕往好矣.’ 伯氏曰: ‘吾則不知時僻之如何. 去則君可自去, 何乃携我而去也? 吾則自吾也, 別無所主處, 又無可去處矣.’ 沈鑿脅之誘之, 無所不至. 伯氏正色曰: ‘言且休矣. 君欲去則去矣. 吾何可隨君耶?’”

이지만 시벌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강조하였다. 이희평이 정순왕후가 사망한 뒤 약 20여 년이 지난 뒤에 계서잡록을 편찬하면서 1권에 위의 일화를 삽입한 것은 시벌 논쟁으로 후대에 논란이 생길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벌 문제에 대한 이희평의 이러한 서술 태도는 2, 3권에서 바뀌는데, 1권에서와는 달리 시과외의 입장에서 당시 정치적 사건과 시벌에 연루된 인물들의 일화를 서술하였다. 그중 홍봉한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린 한유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귀주는 유생 가운데에서 홍 정승을 배척하는 상소를 쓸 사람을 찾았는데 당시 청구 유생 한유(韓鑰)가 『유곤록(裕昆錄)』의 문제로 상경하여 상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사람됨이 사납고 독한 사람이었다. 김귀주는 그를 친밀하게 대하여 자기 집 뒤의 정자에 머물도록 하고 마치 연 태자(燕太子) 단(丹)이 형가(荊軻)를 예우하듯이 하였다. 매양 홍봉한을 공격할 일로 권유하였으나 한유가 “내가 다른 일로 서울로 올라왔소 나는 저와 아무런 혐의가 없거늘 시벌 영의정을 내 무슨 까닭으로 비난하는 상소를 올리겠소”

라고 하자, 김귀주는 “그냥 해본 말이오” 하고 다시 강권하지 않았다.

어느 날 홍정승이 김귀주를 보러 왔다가 후원에서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물었다. (중략)

“영감과 나는 외척이니 밖에서 객을 끌어들이 필요가 없겠소”

홍 정승은 이렇게 말하고 조금 있다가 돌아갔다.

이튿날 김귀주는 한 하인을 내세워 한유가 있는 자리에서 홍 정승의 분부를 전갈하도록 꾸뻘다. 서로 이렇게 약속한 다음, 김귀주는 산정에 올라가 한유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때 문득 한 하인이 올라와서 “영감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묻는 것이었다. 이에 김귀주는 “어디서 왔는가?” 하였다.

“소인은 국동(國洞) 영상택 하례입니다. 대감이 전갈하시기를, ‘어제 만나 뵈어 기뻐했습니다만 밤사이 안후가 어떠신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와 영감은 다 같이 척리이니 밖에서 사람을 끌어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청주의 한

가로 말하면 더욱 괴물이므로 오래 머물러 두는 것은 불가하니 속히 쫓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유가 이 말을 듣고 발끈 성을 내 낮빛이 붉으락푸르락해져서 일어나 상소를 짓겠다고 자청했다. 김귀주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만류하였으나 머리카락이 관을 찌를 지경이 되었다. 그리고 소매를 털고 일어서더니 드디어 왼손에 도끼를 들고 오른손에 자리를 들고 대궐 문밖으로 나아가서, “청하옵건대, 홍봉한의 머리를 베어 귀신과 사람들에게 사죄하도록 해야 할 일입니다.”라고 상소를 올린 것이다.¹³⁾

위는 『계서잡록』 2권 73화의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이희평은 위 일화에서 한유가 상소를 올린 사건은 김귀주의 모략에 의한 것이라고 서술하였다. 즉, 김귀주가 홍봉한의 말을 거짓으로 전달하였고, 김귀주의 계략에 넘어간 한유가 홍봉한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위의 인용문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이희평은 73화의 서두에서 김귀주가 외척으로서 당시 선비들을 포섭하여 홍봉한을 공격하는 논의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이희평이 1권에서 이희갑의 일화를 서술한 태도와는 달리 시파의 입장에서 김귀주를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안사람이 아닌 인물의 시벌 관련 사건을 서술할 때는 시파의 입장

13) “時淸州 儒韓鎬, 以『裕昆錄』事上京, 將治疏, 而爲人猥毒, 龜柱與之親密, 置之家後山亭, 待之如燕丹禮荊卿也. 每以攻洪事言之, 則鎬曰: ‘吾以他事上京. 彼既與我無嫌, 則當局首相, 吾何故疏論也云云.’ 龜柱曰: ‘聊試耳.’ 更不強勸. 一日, 洪相爲見龜柱而來, 聞後堂喧笑聲, 問曰: (중략) 洪相曰: ‘令監與吾俱是戚里也, 不必延攬人客矣云.’ 而少焉歸去矣. 翌日, 龜柱粧出一隸, 假做洪相之傳喝, 迨渠之在座而傳之. 相約後, 坐山亭與韓酬酌, 忽有一隸來, 問: ‘令監何在?’ 龜柱曰: ‘何處來?’ 隸對曰: ‘小人卽國洞領相宅隸也. 大監傳喝以爲, 『昨奉尙慰, 夜候如何? 昨豈不云乎. 吾與令監俱是戚里也, 不必延攬人客, 而至如淸州韓哥者, 尤其是怪物也, 不可久留, 斯速逐送爲好云云.』’ 韓鎬聞此言, 勃然大怒, 面色青紅, 仍起而請疏草. 主人以不必如是, 挽止, 則怒髮衝冠, 拂袖而起, 左挾斧, 右持草席, 走伏闕門之外, 而疏曰: ‘請斬洪風漢之頭, 以謝神人事云云.’”

으로 벽파에 대한 비난을 표출한 것이다.

김상로는 김약로의 동생으로, 대신으로서 병신년에 관작을 추탈당한 죄인이 다. 성격이 잔혹하고 급하여 평안 감사가 되었을 때 각 읍을 순행하다가 길가에 돌이 있으면 수향, 수리들로 하여금 이로 뽑게 하고, 발꿈치를 장(杖)으로 때려서 왕왕 피를 토하고 죽었다. 그 외에도 앞에서 하는 행동이 미땅치 않거나 다담 등속이 좋지 않으면 벌을 내리고 곤장을 치고 하여 열에 여덟아홉은 죽는 데 이르렀다.¹⁴⁾

김종수의 어머니는 흥봉한의 종매(從妹)로, 김종수 형제는 외가에서 자라서 흥봉한과의 관계가 친외삼촌과 조카 사이와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당론이 갈라진 이후부터 흥씨 집안을 원수 대하듯 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욱 심했다.¹⁵⁾

위는 3권의 7화와 16화의 일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7화에서는 김상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였는데, 김상로는 영조와 사도세자를 이간질했다는 죄목으로 정조가 즉위한 해에 관작을 추탈당한 인물이다. 이희평은 김상로가 평안 감사로 있을 때 수향, 수리들을 괴롭힌 일을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그가 잔혹한 성격의 인물임을 나타냈다. 16화는 흥봉한과 관련된 김종수의 일화를 기록한 것으로, 이희평은 16화의 서두에서 김종수를 외가 친척인 흥봉한과 친외삼촌과 조카 사이처럼 가까이 지내다가 벽파에 합류한 이후에는 친하게 지냈던 과거의 관계를 저버리고 흥봉한 집안을 공격하는 인물로 묘사하였다. 이러한 김종수에 대한 이희평의 입장은 혜경궁 홍씨가 『한중록』에서 김종수를 비난한 것과 유사하다. 혜경궁은 『한중록』에

14) 『溪西雜錄』 권3(이희평본), “金尙魯, 若魯之弟也, 以大臣丙申追奪罪人也. 性酷而急, 爲箕伯時, 巡到各邑, 道路如有石, 則使首鄉首吏以齒拔之, 而以杖打其趾, 往往嘔血而死. 其外舉行及茶啖之屬, 少而不如意, 則刑之棍之, 十至八九之死.”

15) 『溪西雜錄』 권3, “金鍾秀之慈母, 卽洪相之從妹, 鍾秀兄弟皆養育於其外家, 無異親舅甥也. 自論義岐貳之後, 仇親洪家尤甚於他.”

서 김종수를 가깝게 지냈던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혜경궁의 집안 사람들을 오해하여 공격하였으며, 말년에 이르러서도 정조에게 편지를 보내 김종수 자신에 대한 유언비어를 해명한다는 명목으로 혜경궁의 집안을 공격한 인물로 서술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희평이 시파의 입장에서 김종수에 대해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이희평은 1권에서 선조의 행적을 해명하고 집안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희평이 선조의 행적을 해명한 것은 선조와 관련된 논란으로 집안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또한 노론강경파이자 시파로서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낸 것은 당시에는 이러한 정치적 입장이 가문의 존망을 결정하고, 훈인, 학맥, 관직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입장이 곧 집안의 정체성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1권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드러냈으며, 이러한 집안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조선 후기의 정치적 사건 및 관련 인물들을 해석하고 이를 2, 3권에 기록한 것이다.

4. 결론: 야담에서의 ‘가문서사’의 의미

이희평의 『계서잡록』은 이희평 집안의 가사(家史)를 포함하여 야담집을 편찬하였다는 점, 그 가사의 분량이 전체 야담집의 1/4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점, 그리고 가사에 해당하는 내용을 첫 번째 권으로 구성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본고에서는 이 점에 주목하여 가문서사에 해당하는 1권에 수록된 이야기의 유형을 개관하고, 그중에서 정치적 사안과 관련된 일화를 중심으로 이희평이 『계서잡록』을 통해 나타내고자 했던 가문의 정체성을 살펴보았다.

이희평이 야담집의 1권을 가문서사로 구성하여 집안 인물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은 가문을 중시하는 당시의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희평의 가문은 지속적으로 문과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음직으로 관직에 진출한 인물들 또한 다수 존재했다. 이처럼 그의 집안은 관직 생활을 이어가면서 명문가의 명맥을 유지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후대에 전할 만한 인물의 업적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야담집의 일부를 자신의 집안 이야기로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가문의 흥망성쇠는 곧 그 일원의 흥망성쇠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계서잡록』 1권을 통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해명함으로써 가문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자 했다.

한편으로, 『계서잡록』 1권이 가문서사로 구성된 것을 통해 필기에서 야담으로의 이행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1권은 이희평이 자신의 직간접 경험과 어려서부터 들어온 선조들의 일화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필기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 조선 중후기의 필기에서도 저자가 선조 혹은 형제들에 대한 일화를 기록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심수경(沈守慶, 1516~1599)의 『견한잡록(遣閑雜錄)』에서는 당질, 어머니, 조부 등 가족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으며, 정홍명(鄭弘溟, 1582~1650)의 『기옹만필(畸翁漫筆)』에서도 아버지와 중형(仲兄)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견한잡록』과 『기옹만필』은 시화(詩話)가 주를 이루고 있어 선조나 형제들이 지은 시를 제시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일화를 기록한 것도 있으나 단편적인 사실을 나열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희평과 같은 한산 이씨인 이기(李璣, 1522~1600)의 『송와잡설(松窩雜說)』은 앞서서 제시한 필기에 비해 선조들의 이야기를 다수 수록하고 있으며, 목은의 절의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계서잡록』과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송와잡설』 또한 시화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가문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는 짧은 일화로 구성되어 있다. 즉, 조선 중기에 편찬된 필기의 경우, 가족의 이야기를 수록하고는 있으나 그 비중이 적으며 시화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가족 관련 기록은 서사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다.

『계서잡록』보다 조금 앞선 시기인 18세기 후반에 편찬된 이동윤(李東允, 1727~1809)의 『박소촌화(樸素村話)』의 경우, 조선 중기에 편찬되었던 시화 중심의 필기가 아니라 야담집이라는 점, 저자인 이동윤이 한산 이씨이면서 노론 강경파라는 점, 그리고 3권에 약 30여 편의 가족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서잡록』과 유사하다. 그러나 『박소촌화』는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배치한 체계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가족의 이야기는 3권의 중간에 삽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계서잡록』과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필기, 야담집에서 가문의 인물들에 대해 기록한 것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희평이 『계서잡록』의 한 권을 가족의 이야기로 구성한 점, 그리고 세대에 따라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배열한 점, 가족의 이야기를 다양한 측면에서 수록한 점, 그리고 그 분량이 많다는 점에서 기존의 필기·야담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이야기를 배열한 방식은 1~3권이 동일하여, 가문의 이야기를 기록한 1권을 야담집으로 구성한 2, 3권과 같은 구성 방식으로 편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족의 이야기를 여타의 야담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서사로 구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1권을 가문서사로 구성한 것이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였을 때 『계서잡록』 1권을 통해 필기에서 야담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식의 변화를 살필 수 있다.

참고문헌

- 이희평, 『溪西雜錄』 권1~4.
- 강혜규, 「『溪西雜錄』에 나타난 奇異의 특징」, 『漢文學論集』 53, 근역한문학회, 2019, 235~256.
- 김상조, 「『溪西野譚』의 書誌의 研究-『溪西雜錄』과의 關係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논문집』 32, 1991, 41~55쪽.
- 김준형, 「기문총화계 야담집의 문헌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1~128쪽.
- _____, 「19세기 야담 작가의 존재 양상-계서(溪西) 이희평론(李羲平論)」, 『민족문화사연구』 15, 민족문화사연구소, 1999, 65~102쪽.
- 목은연구회, 『牧隱 李穡의 생애와 사상』, 일조각, 1996, 1~636쪽.
- 이강석, 「목은 이색의 절의 실천과 후대의 평가」, 『포은학연구』 16, 포은학회, 2015, 81~113쪽.
- 이강옥, 「이경류 이야기의 전개와 그 의미」, 『한국문화논총』 61, 한국문화학회, 2012, 61~93쪽.
- 이병직, 「李東允의 사상과 『樸素村話』의 저작 動因」, 『문창어문논집』 39, 문창어문학회, 2002, 47~77쪽.
- _____, 「『樸素村話』의 텍스트 구성 방식과 의미」, 『한국민족문화』,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3, 109~138쪽.
- 정만조, 「牧隱 李穡의 역사적 위상과 영남의 餘脈」, 『민족문화논총』 50,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2, 137~170쪽.
- 정명기, 「『溪西雜錄』 卷之利(연민본)」, 『열상고전연구』 10, 열상고전연구회, 1997, 337~410쪽.
- _____, 「완질 『溪西雜錄』(일사(1)본)의 출현에 따른 제 문제」, 『열상고전연구』 40, 열상고전연구회, 2014, 171~207쪽.
- _____, 『한국 야담의 자료와 전승』, 보고서, 2019, 1~641쪽.
- 조선옥, 「『樸素村話』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186쪽.

ABSTRACT

A Study on Family Narration in Yadam(野談)
 - From a perspective of the study on *Gyeseojabrok*(溪西雜錄)

Kang, Soo-jin*

Gyeseojabrok, a historical storybook compiled by Lee Hee-pyeong (李義平, 1772~1839)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 is composed of a total of four volumes. Volume one is a record of Lee Hee-pyeong's family history, his personal experiences, and the stories he heard during his tenure as a local official. This volume is distinctly different in character from volumes two to four, which consists of stories based on legends from the distant past. Considering that Lee Hee-pyeong placed his family history in the first volume, it is clear that he valued his family record narration in the compilation of the historical storybook. *Gyeseojabrok* is a historical storybook compilation that also includes the recorder's family history, and this family history is of such importance that it accounts for approximately a quarter of the book. Only Lee Hee-pyeong's *Gyeseojabrok* has this characteristic among the extant unofficial historical storybooks, but this aspect was not considered important in the previous studi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Gyeseojabrok* as a family narration, focusing on volume one, and suggest directions for the study of Yadam (Unofficial Historical Stories).

Key Words *Gyeseojabrok*(溪西雜錄), Lee Hee-pyeong(李義平), family narration, Pilgi(筆記), Yadam(野談)

논문투고일 : 2021.01.26
 심사완료일 : 2021.02.08
 게재확정일 : 2021.02.09

* Lecturer of Ewha Womans University